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한농연중앙연합회 임·직원 폭설피해농가 복구지원활동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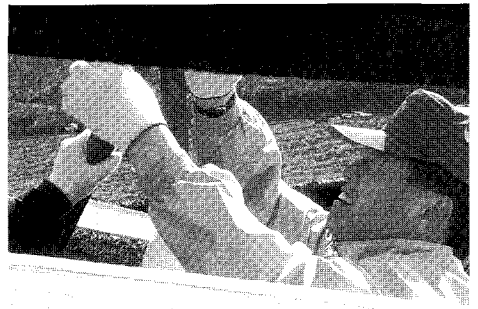


한농연중앙연합회 임·직원은 지난 18일, 충북 보은군 내북면으로 폭설피해복구 지원활동에 나섰다. 서정의 회장을 비롯하여 각 부서 부회장과 직원이 모두 동원되어 복구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지원활동 이후 두 번째 일이다.

이날 복구작업은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의 방홍식(64)씨 인삼밭(2천평)에서 이루어졌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되었다.

서정의 회장은 복구활동 도중 충북지방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순수인력노동으로만 가능한 시설 복구작업이 대부분인 지금,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으로 그나마 투입되었던 인력마저 끊겨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더 많은 복구인력의 투입과 재해복구 지원단가 현실화, 소득보전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얘기했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앞으로도 이번과 같이 농업재해지역에 대한 복구활동을 기회가 닿는 대로 자주 가지면서, 현장 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정책생산을 하는데 좋은 경험으로 삼을 예정이다.





산하연합회 소식

한농연 산하연합회, 피해복구 발 벗고 나서

지난 4~5일 양일간에 걸친 폭설로 인해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농연 산하연합회들이 복구지원에 나서고 있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현재 정부가 폭설피해를 입은 전 지역에 대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노무현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군병력이 국회로 이동하는 등 일손이 부족해 복구가 늦어지고 있으며, 복구지원비가 현실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농자재도 부족해 올해 영농준비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는 피해복구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각도 연합회 및 지역 연합회 간 교류를 통한 상호 지원활동을 적극 요청하고, 지역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복구지원에 나선 시군연합회는 삼척시·양양군·청주시연합회와 도연합회로는 경기도 연합회가 복구지원활동을 전개했다.

삼척시연합회(회장 김상용) 회원 40여명은 지난 12일 경북 문경지역, 양양군연합회(회장 이상덕) 회원 50여명은 충주시지역으로 각각 복구지원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15일에는 경기도연합회(회장 엄동식) 임직원 및 회원들이 충북 청원군 오창면 신평리 20여명, 옥산면 신촌1리 20여명, 강해면 궁평 3리 20여명 등 총60여명이 복구지원활동을 전개했으며, 청주시연합회(회장 이용기)도 회원 20여명이 청주시 서곡동 피해지역에 복구지원 활동에 나섰다.

온산읍경영인회, S-Oil과 추곡수매약정 체결

울산시 온산읍 농업경영인회(회장 김일섭)가 지난 10일 S-Oil과 올해 추곡수매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서에 따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무공해 쌀에 대해 농협수매 후 잔량 전부를 S-Oil이 정부수매가 기준으로 현금 매입키로 했다는 것.

S-Oil이 금년도 말 온산읍 농가에서 수매할 추곡은 40Kg 들이 1만 가마 가량이며, 예상 소요비용은 약 7억 여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Oil의 관계자는 "쌀값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아울러 지역농

업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2001년부터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와 병행하여 “농민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무공해 쌀 생산을 위한 지원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일섭 회장은 “WTO와 쌀개협상으로 앞으로 농사 짓기가 더 힘들어질텐데, 지역의 기업체와 좋은 계기가 마련돼 시름을 덜었다.”고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연합회, 2004년 핵심간부 교육 실시

한농연강원도연합회(회장 김수만)는 지난 3월 5일, 6일 양일간 한국가스공사 정선연수원에서 “2004년 핵심간부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폭설이 오는 가운데 25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는 높은 열의를 보였다.

이번 교육은 “강원도 농어촌 활력화 종합대책”에 대한 강원도청 관계자의 특강과 “조직리더의 역할”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주제로 하이마트 송원재 교육지원부장의 강연, “협동조합개혁”을 주제로 한농연 정책연구소 이현목 소장의 강연, “한농연 조직의 발전방향”에 대해 한농연 강원도연합회 3대 회장을 역임한 김동열 전 회장의 강연 등이 교육 첫날 진행되었다.

둘째날에는 “농업경영인연합회 사업분야별 업무연찬” 시간으로 2004년 사업방향 및 주요농업정책 및 소득사업, 문서업무처리 및 회계업무 관련 교육 등 각 분야별로 교육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지막 교육으로 “한농연 의전 행사”에 대해 강원도연합회 박명길 부회장의 강연이 있었다.

전북도연합회, 협동조합 교육 개최

전북도연합회(회장 임선택)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북유스호스텔에서 ‘2004년 협동조합 이·감사 및 대의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지역 협동조합 대의원 및 이·감사 150여명이 참석, 한농연중앙연합회 탁명구 사무총장의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실천과제’ 특강을 시작으로 유



광희 순창군 동계농협조합장, 김배옥 협동조합발전연구위원장 등의 '조합과 조합원의 역할과 과제' 사례발표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다음날 교육평가 및 토론시간에는 경북지역의 지역조합 개혁과 관련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으며, '경북지역의 개혁투쟁 성과를 시작으로, 향후 전북지역에서도 지역조합 개혁에 박차를 가하자'는 의견이 오고 갔다.

충북도연합회, 2004년 한농연·한여농 충북 농업지도자 및 신규회원 교육 실시



한농연충북도연합회(회장 송인범)는 지난 2월 27·28일 충주시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400백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2004년 한농연·한여농 충북 농업지도자 및 신규회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충북도정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 충북도청 관계자의 설명과 “쌀 재협상과 DDA 전망”을 주제로 중앙대 윤석원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다. 또한, 교양강좌로 “성인병

과 식이요법”을 주제로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이종순 박사의 특강과, “21세기 농업은 지적 재산권 경쟁시대”를 주제로 (주)명성테크 한상관 대표의 강연 등이 이어졌다.

경남도연합회, 2004년 경상남도 농업경영인 임원교육 실시

한농연경남도연합회(회장 김종출)는 지난 3월 12일 농협창녕교육원에서 약 25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4년 경상남도 농업경영인 임원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한농연 지도자로서의 자세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농연 서정의 중앙회장의 특강과 함께 “가정생활과 자녀 지도”라는 주제로 의지원 김평곤 원장의 특강이 있었다. 이외에도 특강 후에 도연합회의 단합을 다지는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그 밖의 농업계 소식

95%가 쌀수입 반대

광주·전남 농민연대 쌀수입개방 찬반 투표

광주·전남 농민연대(공동대표 배삼태)가 지난 13일 보성군 득량면에서 실시한 쌀수입개방 지역 주민 찬반투표에서 95%의 주민들이 쌀수입 반대에 표를 던졌다.

보성군 득량면 36개 마을주민 2,630명이 참여한 이날 투표에서, 반대 2,226표(94.9%), 찬성 119명(5.09%), 무효 122표, 기권 163명으로 집계, 쌀수입개방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에 앞서 광주·전남 농민연대는 지난 10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2004년 쌀 개방 저지 투쟁 선포식'을 갖고 민족농업 사수와 쌀 개방 저지를 위해 주민투표와 4월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후 전남지역의 쌀수입개방 찬반투표는 25일 해남군, 30일 고흥군 등 전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농민연대, 2기 사업계획 확정

전국농민연대가 2차 정기총회를 통해 '2004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전국농민연대 대표자들은 지난 4~5일 양일간 2차 정기총회를 열어 활동목표와 사업계획, 조직활동 등에 관한 2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전국농민연대 2기의 활동목표는 △농업개방공세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통한 농업회생의 전기마련 △농업, 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마련과 정책화 △전국농민연대의 확대발전이며, 사업계획으로는 △4.15총선대응활동 △협동조합개혁활동 △남북농업교류활동 △쌀 지키기 활동 △WTO/DDA협상에 적극적 대응 △농업보호를 위한 대 언론활동 강화 등이다. 조직활동으로는 △전국농민연대 지역조직 강화 및 회원단체확대 △고문 및 자문위원단의 위촉을 통한 농민연대 외연 및 대표성 확대 △일상적 정책협의체 확보 및 사무국강화 방안 마련 △재원확보방안 마련과 실행 등이다.

전농-민주노총-민주노동당 공동 시국성명 발표 보수정치 완전 척결 범국민 투쟁 선포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공동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이들 단체는 공동시국성명을 통해 ‘총선승리를 위한 수구보수부패집단의 대통령탄핵사태를 규탄하고, 민생을 파탄내는 보수정치에 대해 전 민중이 철저히 심판할 것’ 이라고 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또한 탄핵사태의 원인을 제공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16일 전국 단위노동조합 대표자, 시군구 농민회 대표자, 각 대학 학생회 대표자, 빈민대표자 등을 중심으로 공동기자회견과 비상시국대회를 시발로 ‘부패한 보수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당의장 “구속자 석방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전국농민연대가 여의도 국회귀빈 식당에서 지나 2일 오후 6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정동영의장은 전국농민연대 대표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칠레 FTA 농민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구속자 석방 및 손해배상, 지도부 소환 문제등의 해결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은 전국농민연대의 요청에 따라 개최됐으며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 정세균 정책위의장, 이우재 의원이 참가했다.

이날 면담을 통해 양측은 쌀 재협상 및 WTO/DDA 농업협상 등 계속되는 농업시장 개방 파고를 공동으로 돌파해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사안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농민단체간의 일상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농민연대 대표자들은 면담과정에서 한-칠레 FTA 국회비준 과정에서 나타난 극한적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농업·농촌 종합 발전 대책 등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농민연대 대표자간의 면담을 주선했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의장은 전국농민연대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